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국론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때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절대 작지 않은 나라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중국·러시아 등의 강대국을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 64년 이래 세계경제사에 남을 기적을 이룬 당당한 국가이다. 전쟁의 잣더미 위에서, 그리고 자원 하나 없는 자원빈국에서 어떻게 64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삼성이 소니를, LG가 필립스를 이기고 현대·기아차가 일본의 미쓰비시를 넘어서는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매우 놀라고,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다.

며칠 전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에 갔는데, 도쿄에서 만난 여러 CEO들이 한국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일본정치가 답답하다며, “당신들의 나라는 잘 될 것 같다. 일본은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게 없는데 한국정치는 잘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일본공항 내 서점에 가니 작은 서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습 책이 수십 종이 나와 있었다. 한국 관광가이드 책도 종류가 참으로 다양했다. 버스를 타면 운전기사가 한국말을 배운다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더라. 이렇듯 일본 내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그 열풍은 엄청난데,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와 우호자매 도시인 산둥성, 강소성, 하북성, 천진시 등의 지역 공무원들이 우리 인재개발원에 돈을 내고 와서 교육을 듣는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제도를 배우려 한다. 지금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 관광을 와도 묵을 호텔이 없다고 한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한 인사도 경기도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자매 지역으로 맺어달라며 방문을 요청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어렸을 때 자란 마을이 고려타운이었는데, 기억 속의 그 마을은 무척이나 한심해 보였는데, 요즘 한국 가전제품을 세계에서 으뜸으로 쳐주는 것을 보면, 그 짧은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인지, 그 변화의 이유를 한국인과 한국기업으로부터 배

우고 싶다고 했다.

경기도와 카자흐스탄 간에도 의료협력을 맺고 있다. 그들이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 우리 의료진이 심장수술 집도하는 것을 보더니 우리의 기술력에 매우 놀라워했다. 얼마 전에는 뉴욕과 로스엔젤레스에서 교포들을 상대로 의료협정을 맺었다. 조국이 그만큼 잘 살면 교포들을 도와줘야지, 왜 안도와주냐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처음 도지사가 됐을 때는, 내게 정치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려 했던 교포들이 말이다.

도지사에 취임한 지 불과 6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며,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살률이 세계 10위다. 38선 부근에 있는 연천군이 경기도에서는 자살률이 가장 높다.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연금이 기가 막히게 많아서가 아닌가 싶다. 노인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층이 기초수급 대상자다. 삶의 낙이 없는 것이다. 요즘 경로당 가면 우리는 죽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소록도에 가서 한센인들을 만났는데, 이 지역도 75% 이상이 70세가 넘는 고령층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고 칭송하는 대한민국인데, 그 실상은 젊은 사람들이 시집 장가를 안가겠다, 애 낳기 싫다고 하며, 노인들은 못살겠다고 한다.

통일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북한, 즉 통일일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섬나라처럼 살지만 통일이 되면 대륙국가가 된다. 해양과 대륙을 잇는 반도국가로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만주의 코리안, 중앙아시아의 코리안들과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고도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다.

나는 통일이 되면 일자리 걱정도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은 나무도 없고, 강도 황폐하며, 도로와 철도도 다 끊겨 있다. 집, 공장, 광산 모두 거의 망가졌다. 이것을 복구하는 데 젊은이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통일은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 독일대사에게 통일 비용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특히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그 이전보다 못해진 게 있는지를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 EU통합의 구심이 되어 EU를 추동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통일의 힘이 유럽 전체를 끄는 구심점이 된 것이다. 지금 독일 총리가 동독 출신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독일은 연방국가이고

주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누가 되든 상관 없다고 하더라.

통일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인데, 독일은 죄를 많이 짓고 분단된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 없이 분단된 나라가 아닌가. 죄 없이 분단되고 죄 없이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인 것이다. 이런 나라인데 통일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통일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본다. 분단상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최고가 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우리가 북한 하나 못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통합과 통일의 미래비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비전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소심한 봉급쟁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는 첫째, 지금 국민들이 절망하는 대한민국에, 절망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악수 몇 번 한다고 민생을 알겠는가. 그래도 내가 민생을 알지 않겠는가. 민생이라면 말이다.

둘째, 대한민국이 64년 동안 한 것을 앞으로 20년만 제대로 하면 세계 10대 선진 강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과 통일의 미래비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말이다.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누구한테 있나.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통찰로 한 길로 깨끗하게 나라를 지키고 선진통일 강대국으로 밀고 나갈 사람이 누구냐. 희망을 줄 사람이 누구겠는가. 중국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도 얘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와 진정한 리더십을 이룩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은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나는 감히 대한민국에 절망하는 청년층,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하고 싶다.

하이닉스가 365일 24시간 3교대를 하고 있다. 7,000명 이상 있는 여성 직원들이 시집 가서 애 낳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병원도, 소방관도 3교대 작업을 하는데, 어머니를 위한 맞춤형 보육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만들었

다. 대부분의 기업은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원장들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 그런 그들을 설득하고 동기부여를 했다. 원장과 보육교사가 모두 엄마를 위하는, 엄마를 위한 맞춤형 어린이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향후 더 많은 기적을 만들 수 있고 현실로 이뤄낼 수 있다. 그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 하며,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김문수 •

시골 경북 영천의 봉건적인 경주 김가의 집성촌에서 태어났다. 판잣집, 초가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으며, 고3 때는 삼선개헌 반대시위를 주도했다가 무기정학을 받았다. 교과서에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개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나왔더라. 선생님이 반성문을 쓰면 위예다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한건데 왜 반성문을 써야 하나고 반문했다.

서울에 올라오니 고층건물이 있는 신시가지 그 뒤에는 내가 살던 시골과 같은 곳도 있더라. 서울이 두 개라는 것을 느꼈다.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열심히 데모도 하고, 이 나라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지 않으려면 열심히 대항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섰다. 두 번 제적당했다. 여러 공장에서 7년 여를 근무하고 노조활동도 했다. 감옥을 두 차례 갔는데 둘 다 국가보안법, 폭력, 집회시위에 관한 것들에 저촉됐다. 그리고 2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어머니가 내 품에서 돌아가실 때 “문수야, 대학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다. 아버지의 유언도 “문수야, 데모도 좋은데 대학은 졸업하면 안 되겠냐”셨다. 두 분이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지 18~19년 만에 졸업장을 받으니 허무하더라. 나이 45세가 되어서 졸업하고, 졸업장을 들고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다. 기뻐해줄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다.

“대선 출마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국회의원도 부천 소사를 지역기반으로 하여 3번 당선되었는데, 그곳은 이른바 호남색이 짙은 대표 지역구였다. 쟁쟁한 상대후보들 속에서 3등 정도로만 여겨졌던 내가 그들과 겨뤄 결국엔 1등을 했다. 그 지역은 재선에 성공한 후보도 역사상 없었다. 당 대표가 고향에 가서 정치하라고 배려해주겠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내에게 물었더니, “당신은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뽑아줬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되자마자 그런 생각을 하나. 남자 맞냐”고 했다. 많이 부끄러웠다.

도지사에 도전하려 하니, 당에서 “당신은 말투가 그러니 경북지사로 가라”고 하더라. 40년 살아도 안 되는 말투가 한 달 배운다고 고쳐지겠는가. 그래도 당선이 됐다. 두 번째 도지사 출마했을 때는 야권통합 등의 이슈에 밀려 부정적 의견이 나왔지만, 열심히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싶어 뛰었고, 결국은 재선되었다.

지금도 흑자는 “대선 출마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고들 한다. 나는 늘 계란으로 바위를 깨며 성장해온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수꼴(수구꼴통)’이라고 하더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야기하면 수꼴이라니….

나는 친재벌이면서 친노조다

또 많은 언론이 나에게 묻는다. 당신은 친(親)삼성이냐? 그렇다. 삼성전자 공장이 수원, 동탄 등지에 있다. 전 세계에 우리 도처럼 삼성 공장이 많은 곳이 없다. 당신은 친(親)LG냐? 파주, 평택 등에 LG의 공장들이 산재해 있다. 당신은 친(親)현대기아냐? 그것도 맞다. 세계 제일의 자동차연구소, 자동차공장이 도내에 있다. 어찌 내가 친(親)대기업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친(親)중소기업이기도 하다. 인생에서 7년 여를 공장에서 생활한 친노동자고 친서민이다. 나는 친재벌이면서 친노조다.

그럼 당신의 이념은 뭐냐고 묻는다.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 세우자고 한 게 당신 아니냐? 당신이 박정희한테 얻어맞은 사람인데,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는 것은 무슨 생각 때문이냐? 나는 지금 광화문은 이 시대를 상징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이순신, 세종대왕은 기리면서 이승만, 박정희는 왜 안 되는지를 되묻고 싶다.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근간인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우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 산업혁명이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다. 가장 성공한 것을 가장 저주하고 증오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지식인층의 근간이론은 대한민국을 산업화하는 방식은 경공업을 위주로, 즉 국내 자원을 기반으로 해야지 갑자기 중화학공업을 하려 하는 것은 외채를 들여오게 되므로 외채 때문에 종속국가가 되어버리고, 또 만든 제품을 판매할 시장이 없어 결국은 시장중속적이 된다는 것이었다.

박정희가 ‘마이카 시대’를 외쳤을 때 그렇게들 반대했는데, 지금은 경기도의 일자리가 거의 다 자동차에서 나온다. 지금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가 완전히 죽을 쓰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너무 잘나가고 있지 않나. 뿐만 아니다. 김연아를 보라. 군포출신인데 군포시내에 스케이트장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밴쿠버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겠는가. 장미란도 고양시청 소속이다. 대한민국의 딸들로서의 긍지, 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오늘의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